

건축계 뉴스 / 정보

李寬永建設部次官任命

6. 24改關으로 공석중이던 건설부 차관에 李寬永건설부기획관리 실장이 승진전보되었다.

지난달 26일 건설부차관에 임명된 李次官은 지난 66년에 서울시 건설국 기획과장과 69년 건설부총무과장을 거쳐 건설부국토계획국장, 78년 건설부감사관을 역임했으며 79년에는 건설부관리국장, 그리고 80년부터 지금까지 건설부기획관리 실장을 지냈다.

건설부 후속 인사 기획관리실장에 許在榮시

정부는 2일 공석중인 건설부기획관리실장에 許在榮건설진흥국장을 승진 발령하는 한편 건설진흥국장에는 朴勝伯감사관을 전보 발령하는 등 이사관급 6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날 승진된 許在榮신임건설부기획관리실장은 건설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국토행정과장,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관을 거쳐 지난 80년 도시국장을 맡아 오다 지난 6월 25일자로 건설진흥국장으로 전보된 뒤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또 건설진흥국장으로 전보된 朴勝伯감사관은 총무과장, 광건설관, 건설기획관, 해외협력관, 감사관직을 맡아 왔으며 崔錫潤감사관은 도로국로정과장, 해외건설담당관, 해외건설관(필리핀, 인도네시아), 지리원지도부장을 거쳐 국립건설연구소훈련부장을 맡아왔다.

또 사우디건설관으로 전보된 柳常悅수도정비계획관은 법무담당관, 주택정책과장을 지냈는데 인사이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직)

△건설부기획관리실장 許在榮(건설진흥국장=승진) △건설진흥국장 朴勝伯(감사관) △감사관 崔錫潤(국립건설연구소훈련부장) △방재계획관 朴景煥(사우디아라비아건설관) △사우디아라비아건설관 柳常悅(수도권정비계획관) △수도권정비계획관 朴圭悅(쿠웨이트건설관) △국립건설연구소훈련부장 李富植(인도네시아건설관)

서울시 建築賞제정 오는 10월중 작품접수

우수한 建築物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都市美觀 조성에 기여케 하기 위한 서울시 建築賞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상된다.

대상작품은 당해년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建築物로서 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建築士가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住居(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非住居(사무실·상가·호텔 등)로 구분될 작품의 제출 규격은 판넬(90×90cm)로 제작해야 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 건설관리국 건축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품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금상 1명엔 100만원, 은상 2명엔 각각 50만원, 그리고 동상 3명엔 각각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상은 建築部門이 국전에서 분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가 이를 주관하기로 해 제정된 것이며, 서울시는 심사(11월 10일~11월 20일)가 끝난 후 입선작품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간 일반 시민에게 전시할 예정이다.

18개 生活圈으로 多核化 서울 88년대비 都心재편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아시언」 계

임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벌일 각종 도시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金聖培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단핵형태로 되어있는 서울을 永登浦·永東·蚕室등 4대 도심으로 도시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이를 다시 18개 생활권별로 다핵화시켜 도심권인구유입의 가장큰 요인이 되고있는 유통시설과 학교 공공기관등을 분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하철등 교통망도 18개 생활권을 모두 연결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각 생활권별로 충분한 위락시설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을 개발, 시민들이 즐겨찾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고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맑은 물이 늘 흐르도록 하는 한편 대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오는 86년까지 도로율을 현재의 15.2%에서 17.2%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포장률은 68.9%에서 76%로, 江北과 江南을 연결하는 한강다리는 현재의 13개에서 금호·동작·반포대교(잠수교2층·25일준공예정) 등을 완공, 16개로 늘리며 기타 상수도 보급률과 1인 1일급수량 하수처리율도 크게 끌어올려 도시의 기본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서울시가 오는 86년 「아시언」 개막과 88올림픽때까지 추진키로한 주요 사업중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능의 현대화

현재의 도심집중형태를 18개 생활권으로 분산, 재편성하고 永登浦·永東·蚕室 4대문안을 각각 지구도심권으로 설정, 각 생활권과 지구도심별로 교통시설 생활권익시설등을 국제수준으로 갖춘다.

◇생활권계획 ▲도시구조의 재편성 ▲18개생활권별 편익시설배치 = 유통시설 학교 공공기관등 생활권내 자족기능 완비(81년까지 6개지구완료, 82년 江南·江東등 5개지구, 83년까지 7개지구)

86년의 도시수준 (계획)

	82년	86년
도로율	15.2%	17.2%
포장률	68.9%	76%
한강교량	13개	16개
상수도보급률	93.4%	95.4%
1인당1일급수량	428ℓ	482ℓ
하수처리율	17.7%	45.6%
지하철	23km	115km
주택보유율	61.3%	65%
자동차	22만7천대	35만대

建築士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특별전형 1백명 합격

8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명단이 지난 1일 발표됐다.

특별전형 합격자 및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모두 1백69명으로 이 가운데 특별전형 합격자는 1백명이며 자격시험 합격자는 69명으로 밝혀졌다.

특별전형 합격자 가운데 본회 소속 회원은 모두 73명으로 높은 합격율을 기록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특별전형시험 합격자

박중화	김동윤	박정원
임인혁	유경석	이무상
이정선	박학재	최병윤
김영태	홍민기	이철재
최수일	민성기	김춘광
한석배	김영곤	이병택
안의모	이재철	안상은
최영태	신명철	함재철
장성진	정남조	이상환
김영두	이종성	김희태
임금수	장동열	유병석
도원회	송용부	유영수
정영욱	여덕연	김기철
박현석	양용호	박영규
추경호	표재찬	박용우
조정승	이낙정	박영하
이명희	홍문유	김일조
엄경식	정본진	박영희
이강주	윤봉원	김이구
안상익	김규열	안호일
안준원	김관명	김찬목
이의영	최용남	이영기
송인준	임두현	김창구
이진원	이상익	조춘원

이종태	박기조	김정수
이택용	남창학	권직현
이지훈	강신호	석종구
윤재울	노병환	하성국
이시명	신동립	박영차
이근희	한무길	강봉춘
이규승	박재남	최봉형
임정규	조호제	구기용
김형석	최형태	
김윤식	차주복	

□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양상훈	김한일	심상정
김광선	양잠용	임복환
이영택	이문환	정진팔
김연우	한상운	김진섭
김인하	안병석	문제현
이규정	조영일	김광욱
조진성	박석규	박수량
장태희	조익수	이종상
김원일	박성인	정경수
박종길	박상기	최창혁
신상목	김민호	조규욱
이성우	김창환	서귀자
설진섭	이철호	박석현
최의현	최정일	한운길
김철수	김정용	윤덕찬
장순용	유지현	정부영
윤종철	김진희	곽홍길
한시준	김광열	이완영
이영식	장원열	신영천
박재욱	조병수	라영근
이경진	박영목	김희현
송창섭	류재성	강기석
안건혁	김창선	송준영

82년도 建設振興촉진대회

건설진흥촉진대회가 지난달 18일 상오 世宗문화회관에서 金斗煥대통령을 비롯한 金宗鎬건설부장관등 건설관계 당국자와 건설인 3천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大韓建設協會와 海外建設協會, 建設共濟組介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촉진대회에서는 건설수출 5백억달러 달성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념하고 건설인의 총화단결로서 국토건설사업수행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명예와 긍지를 드

높여 韓國건설산업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金宗鎬건설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인이 국가경제발전에 끼친 공이 지대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지나친 受注경쟁과 덤핑을 지양하는 동시 고도의 기술집약형공사 受注로 전환, 날로 악화되고 있는 건설수출시장여건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建築物외벽에 耐久자재 사용케 준공검사 기준 강화

서울시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의 바깥벽에는 타일이나 벽돌등 색깔이 번치않는 내구성 자재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기준을 대폭강화, 건축물의 외벽을 타일, 벽돌, 자연석, 대리석등 내구성이 있고 미려한 재료를 사용해야만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물이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 외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마감처리를 해 건물의 품위가 없고,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비바람에 썩겨,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와함께 개개건물의 외관은 블록별·지역별로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통일 시키거나 비슷한 색조로 가꾸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미관지구와는 달리 일반 지역내의 건축물은 법적 규제대신 건축주를 설득, 권장하는 선에서 도시미관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도 하자보수이행 명령권 적용

지금까지 주택건설 지정업자가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었던 시·군의 하자보수이행 명령권이 앞으로는 20세대 미만의 소형연립주택 건설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건설부는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지정업자가 따로 사업 승인을 얻어 짓게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규모 연립주택에만 적용했던 하자보수이행 명령을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에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올렸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경우,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라야 급수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매년 9월 중 15일간 각 시·군별로 입주개시 후 3개월 이상 지난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시켜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수시, 임의조사에 그쳤던 연립주택 실태조사를 제도화했다.

건설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되는 시공부실이나 분양비위 또는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등급으로 분류,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붕괴 또는 철거할 정도이거나 상·하수도, 정화조 등 위생시설이 없는 경우, 구조체의 결함으로 방수가 불가능한 경우 및 이중매매, 분양금착복, 가동기설정 등 분양비위가 심한 A급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시정·보상 조치케 한 후 모두 고발 및 등록말소시키고 시공자는 영업정지,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 사무소는 폐쇄 조치키로 했다.

건설부는 우선 금년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A급 49건의 관련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부터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5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연립주택 실태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대수선 또는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곳만 39개소나 되었으며 상·하수도과 정화조 등 위생설비가 아예 없거나(3개소)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은 106개소, 방수 부실공사를 한 곳은 156개소 등 모두 4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땅값 대부분 안 올라 6個月間 1.8% 올라

부동산景氣가 계속 침체, 전국 땅값 상승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건설부가 전국 50개 도시 1백78읍, 7백83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81년10월1일부터 82년4월1일까지 6개월간의 地價변동률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평균 1.8%로 오른데 그쳐 작년 동기의 3.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이같은 땅값상승률은 정부가 地價변동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7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도매물가 상승률은 1.1%에 그쳐 땅값이 물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 추세대로 나가면 올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3~4%선에서 안정되어 작년상승률 7.5%의 절반수준에서 머물것으로 전망했다.

地價별로는 대지와 논이 각각 1.9% 올라 평균치를 넘어섰고 밭은 1.6%, 임야는 1.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釜山등 6대도시가 평균 1.5%, 농촌지역이 1.7%, 44개 중소도시가 2.2% 각각 올라 대도시일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市·道別 땅값 변동률 (단위: %)

地 市·道 別	평 均	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전 국	1.8	1.6	1.9	1.9	1.5	1.2
서 울	1.3	2.9	2.2	1.2	2.8	0.9
釜 山	1.0	1.3	1.0	1.1	0	0.2
大 邱	1.2	3.4	1.4	1.1	1.1	1.2
仁 川	3.3	4.1	3.7	3.1	3.5	—
京 畿	2.9	2.3	2.4	3.8	2.1	2.5
江 原	1.7	1.3	1.3	2.3	1.6	2.3
忠 北	2.9	3.0	2.8	3.0	2.7	3.1
忠 南	1.9	1.6	1.6	2.3	1.7	0.5
全 北	2.0	1.3	2.0	2.2	2.0	3.0
全 南	1.9	1.4	1.7	2.3	1.5	3.5
慶 北	1.4	1.1	1.7	1.3	1.2	1.3
慶 南	0.9	0.8	1.3	0.8	0.4	1.7
濟 州	0.6	0.4	1.3	2.1	-0.2	-3.9

海外工事 監理 강화 民間전담기구 설치키로

정부는 현재 수행중인 해외 공사중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 및 부진 공사에 대한 집중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하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金宗鎬건설부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해외공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구제 금융을 받은 건설업체나 정부 지원없이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의 신규도급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7월1일부터 해외건설협회내에 데이터뱅크를 설치, 앞으로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익성 여부를 따져 공사수주여부를 결정토록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해외건설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KS建築資材 대폭 늘려

건설부는 앞으로 KS표시 품목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재료를 종전 14종에서 27종으로 대폭 늘리고 공동주택 이외에도 3층이상이거나 연건평 1천평방m(3백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KS표시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건설부장관이 관장해 왔던 31층 이상 또는 10만평방m(3만 3백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災害지구 陽性化 대상 제외 서울 40개소 발표

서울시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상승재해 지구와 35개 환경경비지구를 지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40개지구 42만7천95평에 들어서 있는 1만3백34동의 무허가 및 위법건물들은 7월1일부터 신고받는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철거케 된다.

상승재해지구등이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내 17만 5천 3백42동의 불법건물 가운데 52.3%인 9만1천7백67동이 새로 양성화대상으로 확정됐는데, 그 내

역은 무허가건물 7만4천7백20동, 위법시공건물 1만7천47동이다.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 8만3천5백75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재개발지구, 상습재해지구등에 있는 건물로 무허가 건물 7만7천5백37동, 위법시공건물이 6천38동 등이다.

양성화대상건물은 7월1일부터 84년 6월30일사이에 해당구청에 양성화 신고를 해야 적법건물로 인정받을수 있다.

海外建設 保證보험 설치 검토

최근 海外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수의 해외건설업체들이 현행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해

외건설 보증보험조합」(가칭)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現代건설, 大林산업, 東亜건설등 10여개사의 대형해외건설업체 대표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해외건설의 ▲공사 재보증 ▲공사비 지원▲손실보전등의 기능을 수행할 보증보험조합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해외공사수주량 감소 및 수주경쟁격화, 부실업체정비를 목적으로 마련한 해외건설촉진법개정령중 해외건설진흥기금은 부실업체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주목적인 까닭에 결과적으로 「부실업체가 덤핑공사로 입은 손해를 건설한 회사들이 事後보상」하는 자금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은 현재 회원업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해외건설진흥기금

을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해외건설보증보험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의 추천이나 보증없이 금융기관이 공사보증서를 발급않도록 한다면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할수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중인 조합 운영試案은 당분간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조합을 운영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후 보증보험공사로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출자금은 정부25%, 해외건설업체 75%로 되어있으며, 기금은▲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공제받는 법인세의 1백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증보험조합이 설립후 보증하는 공사 기성고의 0.1%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 도서 / 자료기증

“감사합니다”

☐ 계명대 “論文報告集”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가 펴낸 세번째 논문보고집으로 지난 81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모두 11편의 논문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有限要素法에 의한 多孔板의 應力解析”(呂白楡·姜文明·權宅鎭) “大學캠퍼스의 空間分析和構

成에 관한 研究”(李重雨·孔章杓·金哲洙) “캠퍼스 주변地域의 분석과 계획方向 연구”(金哲洙·李重雨) “浦項市の 開發을 위한 立地的 機能分析”(孔章杓) “알렉산더의 形態言語 研究”(金鍾仁) “오레건大學의 實驗的 캠퍼스 計劃研究”(金鍾仁·金鍾英) 등 6개 논문이 담겨 있다.

☐ 建築用語大辭典

건축을 비롯한 관련분야의 용어 약 2만5천단어를 수록한 辭典과 事典

을 겸한 용어집이 나왔다.

부록으로 영한용어해설과 현장속어해설을 함께 묶은 이 사전은 총 1천 2백9페이지에 달하며 용어에 따른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있다.

학생을 비롯 기술자, 관계공무원등 모든 건축인에게 필요한 이 사전의 편저는 金平卓씨며 金亨杰씨를 비롯한 5명의 전, 현직교수들이 감수를 담당했다.

☐ 技文堂발행 / 값25,000원 / 82. 6. 25일